

# 게임극복부터 국민주권 정부까지... 새로운 국정운영 이끌어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 없이 취임 내란 이후 6개월 공백 “무덤 같아” 尹 정부 인사 유임 등 유연한 모습 라이브 정부·양방향 브리핑제 실시 주권자인 국민에 국정 투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모습. 흰색과 짙은 붉은색, 파란색이 조화를 이룬 벡타이가 시선을 끌었다. /뉴시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 없이 지난해 6월4일 대선 승리 직후 곧바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3내란 사태 이후 반년 간 멈춰 있던 국정을 정상화 하면서 내란 청산 후속조치에 매진해왔다.

인수위가 없는 것은 물론, 내란 직후 탄핵까지 이어진 6개월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다. 이 대통령은 인기 첫날, 기자단 앞에서 “꼭 무덤 같다”는 말로 텅 비어 있던 용산 대통령실의 황량한 풍경을 묘사했다. 하지만 이 말은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반년 간 방치된 국정을 묘사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후속조치와 국정 정상화에 매진해왔고, 시간

이 흘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은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5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으로 이어진 수사와 ‘헌법준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내란에 동조한 이들을 찾아내는 활동을 했다.

이외에도 최초의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계엄의 손발이 뻗던 군을 쇠신하고 입법을 통해 ‘윤석열 사단’의 발원지였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재발 방

지를 위한 개혁도 이뤄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과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를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또 박용진 전 의원 등 여권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는 물론, 보수 진영 인사들도 발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정부의 이명(異名)에 맞는 의지가 ‘생중계 국정’으로 드러났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상징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라이브 정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최근 20개 내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는 KTV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방향 브리핑제를 최초로 실시했다. 브리핑의 전(全) 과정을 공개해, 질의응답 과정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대변인뿐 아니라 비서실장 및 3실장, 수석 등 고위 관계자들의 브리핑,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까지 그야말로 ‘날 것’으로 공개됐다.

‘라이브’의 효과가 제대로 드러난 것은 국무회의, 탄원철폐 등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는 회의였다. 참모 및 장관뿐 아니라 국민들과도 직접 질답을 나누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중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해왔던 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회의 생중계를 종종 본다든 한 시민은 “국정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 생중계는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감상을 남겼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 관세협상·중동전쟁 악조건 속... ‘실용외교’ 시험대

12·3 내란사태로 대외신인도 하락 국제 무역·안보 질서 격변 속 출범 관세 협상, 불리하지 않은 조건 타결 트럼프 압박 ‘여전’... 전쟁으로 심화 에너지 공급망 위기 국면 타파 총력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국제 무역·안보 질서의 격변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출범했다.

가장 먼저 맞이해야 했던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었다. 정상외교의 공백이 길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미국과 통상·무역 협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원칙으로 삼아 대외의 풍광을 헤쳐 나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트럼프 대

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 맞춤형’ 전략을 가동하며 협상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8월엔 첫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이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은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늦은 출발에도 ‘경쟁국들보다 불리하지는 않은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물꼬를 댔다.

이 같은 양국 정상 간 합의 내용은 ‘공

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명시됐다. 이는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 논의의 중심축이 됐다. 아직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은 안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은 여전하다. 지난 2월엔 한국국회가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관세 인상을 언급했다. 한미간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협력 후속 조치 논의도 쿠광 사태 등을 이유로 수개월 간 지연됐다.

게다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침공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라는 요청을 하는 등 긴장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하던 ‘나무호’를 포격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미국과 이란 사이 ‘실용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외중에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뿐 아니라 정부 고위 인사들은 중앙아시아·중동 국가에 직접 방문·협상 끝에 원유와 나프타(납사) 공급을 약속받으면서 외교 관계 다변화 노력이 위기 관리에 도움이 됐음을 증명했다. 또 이 대통령도 일본 등 여러 국가들과 협력해 에너지·원료 공급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를 이뤄내는 등 외교적 노력을 이어갔다.



/서예진 기자

## “국내주식 복귀는 지능순”... 1년간 코스피 214% 급등

李 대통령 취임 전 코스피 2698.97 첫 현장 일정으로 거래소 방문 부동산·주식 가격만 ↑ 양극화 우려

“국내 주식시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야겠다”

이재명 정부 1년, 최대 승자는 단연 주식 투자자들이다. 취임 전날 2698.97(2025년 6월 2일)이던 코스피는 무려 214.05% 뛰었다. 1억원 투자했으면 지수만 쫓아갔어도 3억원이 된 셈이다. 그러나 ‘편중’과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자형’ 양극화다.

경제와 증시가 반도체 등 특정 업종과 대기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성장이 더디고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만 가격이 치솟아 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에 흘러든 돈을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가게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90.86포인트(3.55%) 오른 8476.15에 장을 마쳤다. 사상 최고치다. 이 대통령 취임 전 날인 지난해 6월 2일 코스피 증가는 2698.97이었다.

이 대통령은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신뢰 회복에 나서서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주가조작 신고 시 받는 포상금의 상한을 없앴고,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으로 부실 기업 증시 퇴출에 나섰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했다. 최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첫날에만 87%가 소진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출시해 서학개미 수요 ‘유턴’을 유도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중

합금융투자계좌(IMA)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 등도 지난 1년간의 주요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꼽힌다.

글로벌 IB들과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연내 1만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탄탄해지고 있어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를 아시아 최선호 시장으로 유지하며 코스피 목표치를 강세장 기준 1만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다. 바로 양극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산 상위 20%(최상위 5분위)가 전체 주식의 73%를 갖고 있다.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 대부분은 잔치 구경하는 신세다. 돈 없는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이 인생 역전을 노리고 택한 게 빚투다. 외상으로 주식을 매수한 신용융자 잔고가 역대 최고치인 37조687억원(28일 기준)을 넘었다.

주식 투자 차익의 종착역도 부동산이다.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주식 자산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무주택 가



코스피가 8476.15로 마감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는 주식 자본이익의 70%를 부동산 자산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됐다.

실물 경제와 증시에서는 ‘K자형’ 양극화가 펼쳐진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의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5.2배에 불과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PER은 15.3배에 달한다.

산업 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생산은 전 분기 대비 14.1% 증가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허정윤 기자 zekko@metro

>> 1면 ‘내란 청산·민생 온기...’서 계속

## 지선後 당정관계 등 남아있는 과제 산적

이 대통령 취임 당시 코스피 지수는 2500선임을 감안하면, 1년 만에 세 배 이상 오른 셈이다.

지난해 수출액도 사상 처음으로 연간 7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올해는 9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서도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과는 ‘국익 중심’을 원칙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했고, 일본과는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구분하는 투트랙 접근법으로 셔틀 외교를 궤도에 올렸다.

다만 향후 남은 과제는 많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를 지켜보며 당정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며,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도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2년차 국정운영 비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